

찬 송 —————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눞 의 시 간 ————— 다 같 이

예배를 마친 후 식사 또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봅시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였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누어봅시다.

| 예배의 진행 |

1. 추모예배

- 1) 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모예배는 고인의 과거를 회고하고, 생전 고인이 남긴 교훈을 되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후손들이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 2) 사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촛불이나 향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예배 전에 차려놓아서는 안 되며 예배 후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추모예배 시간을 제사처럼 밤늦게 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 3)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추모예배 때에 고인만을 추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2.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 1) 인도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기도와 성경봉독, 말씀은 인도자가 하거나 가족 중에 담당자를 따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설 명절 가정예배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서 3장 13-14절



설 명절 가정예배

(개역개정판 성경과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70장 ————— 다 같 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 도 ————— 가 족 대 표

성 경 봉 독 ————— 갈 3:13-14 ————— 다 같 이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 씬 ————— “ 아브라함의 복 ” ————— 가 족 대 표

설이나 추석이 되면 조상을 추모하고, 믿지 않는 가정은 제사도 지냅니다. 조상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뿌리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육신의 조상 외에 믿음의 조상이 있으니, 아브라함입니다(롬 4:11-12, 16 참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첫째,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 3:9). 아브라함의 복은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복도 아니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둘째, 믿음의 성도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받았습니다(갈 3: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정죄도 없습니다. 형벌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고, 좋은 못자리를 쓰는 이유는 조상들의 은덕을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흉한 일을 막고, 나쁜 것은 떠나가고, 많은 복이 오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저주와 정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역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주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갈 3:14는 십자가가 가져온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14절은 ‘이는’으로 시작하여 ‘...하러 함이라’로 끝납니다. 즉 14절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갈 3:5).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영생이며, 믿는 성도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설날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